

<하기 글은 2016년 12월 21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어느덧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열띤 토론이 펼쳐졌던 그 현장의 열기를 전해 드립니다!



지난 16일 오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따뜻한 인사 소리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2016년 마지막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년간의 소통협의회 활동 기록을 담은 영상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영상 중간중간 추억이 담긴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 흡연 등 4분기에 발생한 주요 민원에 대한 조치 결과와 지난 정기회의 안전 처리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임직원뿐 아니라 상주 협력사에도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두 진지한 얼굴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2월 정기회의에서는 △오케이 365 희망천사 △추위를 막아라(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헨즈온 물품(행복꾸러미) 전달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 지원 어울리는 훈훈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 ※ **오케이 365 희망천사**  
: 회사 반경 5km 내 소외계층 생필품 및 긴급구호 기금 지원 사업
- ※ **추위를 막아라(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 동절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문풍지, 이불 등 방한활동 지원
- ※ **헨즈온 물품(행복꾸러미) 전달**  
: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천연비누, 샴푸, 가방 등을 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원
- ※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특수 이동 보조기구 지원



특히,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천연비누, 샴푸, 가방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복꾸러미' 활동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느껴졌는지 받으시는 분들의 감동이 더 컸다는 후문입니다.



『삼성전자-용인/화성 소통블로그』 누적 방문자 100만 명 돌파 이벤트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는데요. 이벤트를 진행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받았던 의견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2016년의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평소 개인의 SNS를 이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소통블로그의 소식을 자주 공유한다는 동탄2동 신평자 간사의 연말 인사를 함께 들어볼까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동탄2동 신평자 간사

**동탄2동 신평자 간사 /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2016년도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올 한해 소통협의회 위원으로서 제가 사는 곳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통협의회와 함께여서 더 부지런히 지역사회의 이곳저곳을 살피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준 소통협의회 위원들과 늘 지역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2016년은 어떠셨나요? 다가올 크리스마스나 송년 모임 등으로 바쁜 연말이지만, 하루쯤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삼성전자-용인/화성 소통블로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